

# 우리나라 大學院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案

金 晚 基  
(韓國外國語大 行政學科)

우리 大學院教育의 改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상 우리가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가  
야 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政策化  
하고 實踐에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 I. 序

근간 우리나라의 大學院教育에 대하여 各界로 부터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대학원교육이 지난 몇 년간 量的으로는 엄청난 擴大를 보여 왔음에 비하여 質的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處方을 제시한 연구는 사실상 이미 상당히 나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계의 전문가들에 의한 깊은 洞察과 現地調査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로서 우리에게 대학원 교육의 改善方向을 제시해 주는 연구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원교육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대학원교육의 문제가 무엇이며 개선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政策化하고 實踐에 옮길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本稿는 우리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이를 실천하는 일에 다소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국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再整理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筆者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主管으로 이루어진 1984學年度 大學評價研究事業中 大學院評價分野에 참여한 바 있다. 여기에 제시하는 자료는 주로 그 研究結果<sup>1)</sup>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정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함을 뜻한다. 우선 문제점들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문제의 내용이나 초점(focus)과 함께 가능하면 그 문제의 場所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學年度 大學院評價報告書」, (研究報告 第84-2-23), 1984. 12. 1. 이 보고서와 本稿에 제시된 各種 現況에 관한 수치는 원칙적으로 1984學年度 第1學期의 것임.

(locus)—여기서는 주로 특정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학원의 類型—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所在를 밝혀 보고자 한다.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개선을 위한 主動權(initiative)은 누가 지녀야 할 것인가, 즉 누가 개선작업의 擔當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뻐되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개선작업에 1次的으로 責任을 져야 할 主體를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韓國 大學院教育의 問題點

한국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을 ① 大學院의 量的 側面 및 基本編制 ② 出講教授 ③ 教科課程 ④ 入學銓衡 ⑤ 卒業履修學點數 ⑥ 學位論文指導 ⑦ 獎學金 ⑧ 講師料 ⑨ 論文指導費 및 ⑩ 大學院間 協同狀況 등의 10개 항목에 걸쳐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大學院의 量的 側面 및 基本編制

우선 대학원의 數와 이들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大學(校)의 數와의 관계를 보면 全國적으로 184개의 대학원이 75개의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대학(교)에 평균 2.5개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근간 각 대학(교)에서의 專門大學院의 新設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인데, 문제는 각 대학(교)에서 이들 대학원을 設置·運營함에 있어서 內實 있는 教育을 위한 與件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所在 綜合私立大의 경우를 보면 17개의 대학교가 무려 55개의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음으로써 1個校當 平均 3.2개의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대학원의 定員規模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4學年度 第1學期 현재 1,000명 이상의 정원 규모를 갖고 있는 대학원은 전체의 8.2%에 불과한 반면, 300명 이하의 小規模定員을 갖고 있는 대학원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地方所在 一般大學院의 46.3%, 私立 一般大學院의 41.4%, 그리고 單科大 一般大學院의 대부분(80.0%)이 100명 이하라는 極少數의 정원 규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專門大學院의 경우

에 정원규모가 1,000명 이상인 대학원은 全國적으로 全無하고 대다수(76.7%)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300명 이하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원들이 그 규모상 劣性을 보이고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지난 20여 년간 與件의 具備與否에 관계 없이 대학원을 마치 대학(교)의 必須的인 外形의 裝飾品처럼 인식하고 이의 설치를 서둘러 온 데 기인한 것 같다. 물론 정원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00명도 안 되는 定員을 갖고 있는 일반대학원을 과연 최소한도의 기본 條件과 要件을 갖추고 내실 있는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일반대학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음 專門大學院의 學問系列別 分布現況을 보기로 한다. 系列들 중 保健學系列, 産業系列 및 食糧開發系列 등을 自然系라 보고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大學院數에 있어서 15.2% 그리고 학생정원에 있어서 14.3%에 불과하다. 여기에 環境學系列까지 自然系로 算入해 보아도 그 비율은 대학원수 18.8%, 그리고 학생정원 16.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自然系(또는 理工系)보다 人文·社會系의 專門大學院教育이 압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실상 오늘날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理工系 學問分野의 경우에 高級技術者에 대한 大學院水準의 繼續教育의 필요성은 더 절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각 대학(교)에서 人文·社會系의 專門大學院만을 설치하는 데 열을 올려 왔다는 것은 인문·사회계열의 전문대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施設이나 實驗實習器材 등에 드는 비용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는 말하자면 '收支'가 맞는 사업이고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을 특히 私立大學(校)들의 경우 財政的 補助手段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 2. 出講教授

우선 전체 大學院 出講教授數 약 14,000 명의

所屬別分布를 보면 그 대부분(74.9%)이 該當大學(校)의 전임교수이고 상당한 부분(23.5%)이 외래강사이며 大學院 專任教授는 극히 낮은 비율(1.7%)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전임교수의 비율은 지극히 낮고(1.0%) 國·公立 一般大學院의 경우에는 대학원 전임교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大學院 出講教授의 職位別 分布를 보면 전체 출강교수의 약 72.5%는 副教授級 이상이다. 이를 大學院類型別로 보면 전임강사급이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3.6%이나,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8.8%나 된다. 전임강사급과 조교수급을 합친 비율(下位職의 比率)을 보면, 특히 單科大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全體 出講教授의 절반이 넘고(53.5%) 地方所在 專門大學院의 경우에도 41.5%나 된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비교적 小規模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들과 지방소재 전문대학원들의 경우 出講教授陣이 상당히 脆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출강교수의 經歷別 分布比率와 學位別 分布比率를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出講教授의 經歷別 分布를 볼 때 單科大 專門大學院의 경우 전체 출강교수의 거의 절반(47.2%)에 가까운 교수들이 10年 이하의 비교적 짧은 經歷을 가진 교수들이다. 그리고 出講教授의 學位別 分布를 볼 때 博士學位所持率이 가장 높은 大學院의 類型은 서울所在 一般大學院(74.9%)이고 가장 낮은 것은 역시 地方所在 專門大學院(39.4%)이다.

### 3. 教科課程

우선 1984학년도 1학기에 각 대학원이 평균 몇 개의 教科科目을 개설하고 있는가를 보면 일반대학원이 평균 158.8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에 비하여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39.9과목에 불과하다. 특히 單科大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단지 24.1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일반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地域別, 設立別, 機關別로 平均 開設科目數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所在 大學院이 平均 215.9 科目을 開設하고 있음에 비하여 地方

所在 大學院은 114.6 과목을, 國·公立大學院이 263.0 科目을 開設하고 있음에 비하여 私立大學院은 135.5 과목을, 그리고 綜合大의 大學院이 252.4 科目을 개설하고 있음에 비하여 單科大의 大學院은 31.0 科目을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地方所在 大學院, 私立大學院, 單科大 大學院들에 있어서 매우 制限된 수의 教科科目만을 개설하고 있음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單科大 大學院의 경우 極少數(일반대학원 평균 31과목, 전문대학원 24과목)의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음은 기본적으로 이들 대학원의 峯細性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의 改善을 위한 조치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다음 教授當 講義時間數를 보면 1984학년도 1학기에 있어서 전체 대학원의 教授 1人當 平均 擔當時間數는 4.7시간으로서 이 중에는 물론 實驗·實習時間 등도 포함되어 있음은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체로 過多한 擔當時間數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國·公立 專門大學院(7.4시간), 地方所在 大學院(6.6시간) 및 單科大 一般大學院(6.1시간)등의 경우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역시 是正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4. 入學銓衡節次

여러 가지의 入學銓衡節次(方式)들 각각에 대하여 이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원들의 전체 대학원에 대한 비율을 보면 전체의 76.7%에 달하는 대학원들이 專攻筆答試驗을, 그리고 전체의 70.3%에 달하는 대학원들이 英語筆答試驗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專門大學院의 경우를 별도로 볼 때에는 入學銓衡에서 英語筆答試驗을 부과하고 있는 대학원의 비율이 아직도 전체의 약 半數(55.0%)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私立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불과 43.8%로서 이와 같은 사실은 전문대학원 특히 私立 專門大學院의 경우 되도록 많은 院生을 받아들여 大學院運營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弛緩된 入學銓衡方式을 시행하고 있는 듯한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완된 入學銓衡制度를 통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생들이 다수 입학된다고 볼 때 이는 大學院教育의 質의 水準을 떨어뜨리

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5. 卒業履修學點數

1984학년도 1학기에 있어서 각 대학원이 규정하고 있는 졸업에 필요한 總學點數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평균 26.7학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평균 39.3학점, 그리고 전문대학원이 평균 29.2학점이다. 전문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각 대학원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綜合大 專門大學院이 평균 26.0학점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하여, 單科大 專門大學院은 평균 44.6학점이라는 엄청난 학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원들간의 큰 隔差는 합리적인 履修學點數를 研究·算定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6. 學位論文指導

1984학년도 1학기 현재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教授 1人당 學位論文指導院生數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학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1.9명인데 비하여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2.5명으로서 전문대학원에 이어서는 1인의 교수가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2~3편의 논문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공립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교수 1인당 평균 지도원생수가 3名線을 넘고 있어 過重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 1인당 논문지도 원생수가 한 학기에 2人を 넘는 경우 교수의 부담이 과중해진다고 볼 때, 1984학년도 1학기에 있어서 평균 지도원생수가 2.1명 이상이 되는 대학원이 전체적으로 34.4%에 달하고 있어 전체 대학원의 약 3분의 1정도가 교수의 논문지도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所在 전문대학원과 單科大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51.9%와 54.6%로서 이들 대학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반 이상의 대학원에서 교수가 과중한 논문지도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7. 獎學金

우선 獎學金受惠者比를 보기로 한다. 석사과

정의 경우를 대학원 유형별로 보면 전문대학원(44.6%)이 일반대학원(43.4%)보다 근소한 차이이지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一般獎學金과 助教獎學金의 受惠者比率이 각각 22.3%와 21.1%로 양자가 비슷한 데 비하여,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전체 院生의 거의 半數(41.6%) 가량이 일반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助教獎學金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博士課程의 경우에 있어서도 一般獎學金受惠者比(20.8%)가 助教獎學金受惠者比(11.7%)보다 높다. 이는 현재 각 대학원에서 博士課程在籍院生을 助教(teaching assistant 또는 research assistant)로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獎學金實態를 檢討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장학금 수혜자비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獎學金受惠額比의 문제이다. 즉 장학금을 받는 원생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보다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장학금을 받는가, 獎學金額數가 과연 실질적으로 원생들이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一般獎學金의 경우를 보면 獎學金額數 水準이 登錄金額數 水準의 4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이 전체의 42.5%나 되는 반면 81% 이상이 되는 대학원은 전체의 19.7%에 불과하여 일반장학금의 경우 대체로 實質的인 도움이 못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대학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원에 있어서는 그 비율 81% 이상이 되는 대학원이 전체의 36.7%이나, 전문대학원에 있어서는 그 비율 81% 이상이 되는 대학원이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전문대학원의 반 이상(55.1%)에 있어서 一般獎學金額 수준은 등록금의 40%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 8. 講 師 料

전체 대학원에 있어서 전임교수의 時間當 平均 講師料(碩士課程 기준)은 7,880원으로 되어 있다. 이를 대학원 유형별로 볼 때 일반대학원(6,394원)이 전문대학원(8,782원)보다 낮다. 일반대학

원과 전문대학원 共히 지방소재 대학원의 경우가 서울소재 대학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경우 지방소재 대학원의 평균 강사료(6,160원)는 서울소재 대학원의 평균강사료(10,685원)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소재 전문대학원들의 거의 반수(48.9%)가 5,000원 미만의 매우 낮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 평균 강사료를 設立別로 볼 때 국·공립 대학원과 사립대학원간의 격차는 대학원유형(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관계 없이 우리가 쉽게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즉 전체적으로 국·공립대학원 평균 강사료(4,033원)는 사립대학원 평균 강사료(9,00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원(전체 국·공립대학원의 89.7%, 국·공립 일반대학원의 92.3%, 국·공립 전문대학원의 88.5%)에서 전임교수에게 평균 5,000원 미만의 매우 낮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 9. 論文指導費 및 審査手當

우선 院生 1人當 論文指導費(碩士課程 기준)를 보면 전체 대학원의 평균은 59,606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공립대학원에 있어서의 指導費 額의 수준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립대학원의 경우가 평균 68,051원임에 비하여 국립대학원의 경우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1,133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공통되는 현상으로서 일반대학원의 경우 사립대학원이 69,918원임에 비하여 국·공립 대학원은 20,510원에 불과하며,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사립대학원이 66,814원임에 비하여 국·공립대학원은 21,500원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들 모두(100%)에 있어서 論文指導費가 40,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論文審査手當(主審 기준)을 보면 전체 대학원(석사학위과정)의 평균은 24,788원으로 되어 있다. 논문심사수당은 전문대학원의 경우가 평균 27,075원으로서 일반대학원의 21,482원보다 높

다. 논문심사수당의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共히 사립대학원의 경우보다 국·공립대학원의 경우가 매우 낮다. 즉 사립대학원의 평균이 26,438원인데 비하여 국·공립대학원의 평균은 20,000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이를 地域別로 볼 때 地方(일반대학원 18,947원, 전문대학원 17,243원)의 경우가 서울(일반대학원 24,638원, 전문대학원 21,135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地方의 경우 이의 전반적인 引上이 요망된다.

### 10. 大學院間 協同狀況

大學院 相互間에 있어서 學科目的 共同開發(協同科目的 開設) 등 協同프로그램을 設置·運營하는 일은 현재 각 대학원에 있어서의 제한된 人的·物的 資源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러한 大學院間의 協同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 즉 ① 同一 大學院(校)內의 他大學院과 協同프로그램을 開設하고 있는 경우 ② 國內 他大學(校)의 대학원과 協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③ 外國의 大學院과 協동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③의 경우만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外國 大學院과의 協同프로그램 開設狀況을 보면 184개 全體 大學院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개 대학원(16.3%)만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이를 大學院類型別로 보면 일반대학원(23.6%)의 경우가 전문대학원(11.6%)의 경우보다는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는 역시 매우 낮은 비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單科大 大學院들의 경우는 全國的으로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을 통털어 총 44개의 대학원 중 불과 3개의 대학원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開設하고 있는 실정이다.

### Ⅲ. 韓國 大學院教育의 改善方案

여기서는 韓國 大學院教育의 改善을 위한 方案(建議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改善方案들은

이의 實踐主體를 구체적으로 明示함으로써 보다 實質的인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편의상 그 主體들을 ① 國家의 高等教育政策機關인 文敎部 ② 大學教育協議體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③ 각 大學(校) 및 大學院의 세 가지로 나누어 이들 主體別로 해당되는 大學院教育의 改善方案(建議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文敎部の 主管으로 이루어질 사항

- ① 「教育法」에 대학원에 관한 基本規定을 두도록 추진한다.
- ② 假稱「韓國 大學院教育의 育成發展을 위한 中·長期 綜合計劃」(Comprehensive Long-Range Development Planning for Graduate Education)의 效率的인 施行을 위한 行政支援을 한다.
- ③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의 統合된 體制를 달성하기 위한 與件造成을 해 나간다.
- ④ 與件이 갖춰진 專門大學院에 대하여는 博士學位課程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 ⑤ 專門大學院의 研究課程을 活性化하기 위한 措置를 취한다.
- ⑥ 學位課程의 地方分散을 계속 誘導해 나간다.
- ⑦ 專門大學院의 設置·運營基準을 強化한다.
- ⑧ 單科大 博士課程들 중 제대로 운영이 되기 어려운 경우는 이의 改革을 위한 方案을 검토·시행한다.
- ⑨ 自然系 專門大學院의 擴充을 유도한다.
- ⑩ 履修學點數의 合理的인 調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⑪ 定時制院生制度를 검토·시행하도록 한다.
- ⑫ 獎學金 誘致를 위한 措置를 강구한다.

### 2.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主管으로 이루어질 사항

- ① 長期間에 걸쳐 大學院教育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研究(A Comprehensive Time-Series Evaluation Research on Graduate Education in Korea)를 수행한다.
- ② 大學院教育의 育成·發展을 위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한다.

- ③ 大學(校)間 協同프로그램을 助長·支援한다.
- ④ 全國 각 大學院들간의 協議體 結成·運營을 지원한다.
- ⑤ 각 大學(校)間 또는 각 大學院間 圖書館(書庫)의 自由閱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3. 각 大學(校) 및 각 大學院의 主管으로 이루어질 사항

- ① 각 大學院別로 大學院發展委員會를 설치·운영한다.
- ② 教授陣 強化를 위한 中·長期 計劃을 수립·시행한다.
- ③ 大學院 專任教授陣을 構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시행한다.
- ④ 外來講師(時間講師)의 講義擔當比率를 줄이도록 한다.
- ⑤ 전반적으로 보다 높은 職級·經歷·學位를 所持한 教授에 의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多角的인 대책을 강구·시행한다.
- ⑥ 大學院別로 合理的인 敎科課程을 개발한다.
- ⑦ 開設科目數를 늘리고 科目當 受講生數를 줄이도록 한다.
- ⑧ 教授當 擔當科目數를 줄이도록 한다.
- ⑨ 각 大學院別로 合理的인 入學銓衡方法을 연구·시행한다.
- ⑩ 學位論文指導에 있어서 委員會方式을 채택한다.
- ⑪ 教授 1人當 學位論文指導 院生數가 適正한 선에 머물도록 한다.
- ⑫ 論文課題(題目)에 대한 一覽表를 작성·배포한다.
- ⑬ 博士學位課程의 全時制院生(full-time students)을 위한 全額獎學金制(full scholarship)를 확대한다.
- ⑭ 現職者들을 위한 定時制院生(Part-time Students) 制度의 施行을 추진한다.
- ⑮ 論文指導費는 校費支出로써 이를 中당하도록 한다.
- ⑯ 大學院間 協同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
- ⑰ 教授는 院生의 研究를 促進·支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作成·施行한다. \*